

## 약물사용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DRUG USER

박 중 규\*·최 정 훈\*\*

Joong Kyu Park, M.A.,\* Jung Hun Choi, Ph.D.\*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 음주, 흡연, 본드흡입 등을 위주로 한 약물사용 청소년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러한 변인들과 청소년의 약물사용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서울지역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중인 남자 465명과 여자 433명, 총 898명을 대상으로 각종 약물의 사용여부와 학업성적, 비행경험, 약물사용 동료수, 지각된 약물의 입수용이도, 가족의 훈육도, 부모의 일반적인 음주와 흡연에 대한 태도 및 자아개념 수준과 정신건강 수준을 조사하였다. 전체 표본을 사용하고 있는 약물의 수에 따라 남자 6집단, 여자 5집단으로 구분하여 위에 열거한 변인들이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담배와 술이었으며, 남자의 경우는 환각물질들, 여자의 경우는 진통진정제를 사용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었다. 남자와 여자에게서 각 약물의 사용율은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집단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검증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여러종류의 약물을 사용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학업성적이 낮고 비행경험 및 약물사용동료가 많았다. 또한 전자가 후자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정신건강수준과 자아개념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차이를 나타냈던 여러변인들 중에서 무사용집단과 가장 많은 수의 약물을 사용하는 집단을 변별하는 두드러진 변인은 일반적인 적대감과 비행경험인 것으로 판별분석 결과 나타났다. 많은 종류의 약물을 사용하는 학생일수록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부적응적인 양상을 나타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약물의 사용은 공통적인 여러변인들과 관계가 있으며 많은 약물관련변인을 지닌 사람이 더 많은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는 공통위험요인이론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서 론

약물이란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사용하거나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것에 대한 심리적 또는 신체적 의존현상을 가져오는 향정신성 물질을 말한다. 심리적 의존(psychological dependency)이란, 약물사용에서 오는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 계속적으로 약물의 사용을 원하는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며, 신체적 의존(physiological

dependency)이란, 약물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복용효과를 얻기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의 약물이 필요하게 되는 내성(tolerance)이 생기고, 약물의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금단증상(withdrawal symptoms)이 나타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Davison & Neale 1986).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물질들을 모두 약물의 범주에 넣을 때 실제로 술과 담배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 물질들(예컨대 본드, 신나, 가스등)이 약물의 범주에 속한다. 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나하면 향정신성(psychoactive) 의약품이나 마약과 같이 이들은 남용(abuse)되는 경우 거의 동일한 심리적, 신체적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약물이라는 명칭으로 분류되는 이러한 물질들에 대한 또 다른 적절한 명칭은 향정신성 물질(psychoactive substance)이라는 것이다. 미국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의 통계적 진단편람 제 3판 개정판(Diagnostic Statistical Manual-III-R, 1987)에서는 술(alcohol), 암페타민(amphetamine), 대마초(cannabis), 코카인(cocaine), 환각제(hallucinogen), 흡입제(inhalant), 니코틴(nicotine), 아편(opioid), PCP(phencyclidine), 진정제, 최면제 등의 남용에 따른 장애의 진단유목 명칭을 향정신성 물질사용장애(psychoactive substance use disorder)라 하여 약물이라는 용어를 배제하고 있다. 용어의 적합성만을 따져본다면, 본 연구에서 향정신성 물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겠지만, 현재 정신과적으로 통용되고 용어는 약물이라는 용어가 더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약물(drug)이라 함은 '향정신성 물질'과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약물사용율이 몇몇 종류에 있어서는 이미 구미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약물사용과 청소년비행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성이 1988; 이근철, 이길홍, 민병근 1987; 이길홍, 이재광, 나철 1985; 백명기와 민병근 1981; 민병근 1980; 주왕기, 허문영, 최영욱 1983). 최근에 발표된 김성이(1988)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 청소년의 경우 중독성 약물의 경험율이 흡연 36.6%, 음주 50.3%, 각성제 15.4%, 안정제 1.4%, 최면제 0.4%, 대마초(마리화나) 0.7%, 본드 3.7%에 이르고 있으며, 비행청소년의 경우만을 따로 볼 경우 이 수치들은 더욱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길홍외(1985)의 연구에서 보면, 12세에서 21세의 청소년 중 25.7%가 흡연경험이 있고 19.3%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57.3%의 청소년이 음주경험이 있고 그 중 14.9%가 현재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고 있었다. 이들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물사용은 1) 흡연과 음주의 경우에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2) 법규의 제재가 따

르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험율은 비교적 낮으나 각성제, 신경안정제, 본드 등 입수가 용이한 약물의 사용율은 증가추세에 있고, 3) 이러한 여러 약물의 상승적인 사용은 청소년 비행과 밀접한 상관을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의 주요한 관심이 청소년층의 약물사용 실태파악과 그의 비행과의 상관에 국한됨으로써,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여러 행동특성에 관한 고찰은 미흡한 편이었다. 특히,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개인의 성격적 특징 및 심리적 부작용 같은 심리적 특성을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외국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약물사용자의 특성연구는 개인의 1) 사회 환경적(social environmental), 2) 성격적, 3) 유전적 특성 등 크게 세가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첫째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연구는 부모-자녀 관계, 동료(peers)관계, 하위문화 등에 관한 것으로,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청소년의 약물사용은 지각된 부모의 허용성(permissiveness)이 크고, 민주형이기 보다는 자유방임형일 때 훨씬 높았다(Hunt 1974). 또한 유년기에 부모의 관심결여, 모진 신체적 처벌, 불행함을 경험한 사람과 부모로부터 소외감을 겪은 이들이 불법적인 약물사용에 쉽게 개입하였다(Baer and Corrado 1974). 가족구성원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의 부재 또는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와해(disruption)가 주요한 특성이라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부모의 부재유무보다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quality)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Braucht, Brakarsh, Follings & Berry 1973; Vaillant 1966a; 1966b; Baer and Corrado 1974; Chein, Gerald, Lee & Rosenfeld 1964).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가족의 문제 또는 부모-자녀관계의 문제가 청소년 약물사용자의 한 특성임을 지적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에 대한 일치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1) 부모-자녀관계의 응집성이 크고, 가족의 분위기가 개인중심적이기 보다는 가족중심적일 때, 2) 가족의 성향이 보수주의(conservatism)적 일 때, 3) 부모의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약물의 사용이 없어 2세에게 모델링(modeling)되지 않을 때, 청

소년의 약물사용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었다 (Chein et al 1964; Smart and Fejer 1972; Kandell 1973; Newcomb & Bentler 1988).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많은 종류의 약물에 관련되어 있을수록 그의 친구들은 약물사용자였으며, 역으로 약물사용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수록 많은 약물에 관련되어 있었다(Chein et al 1964; Eiseenthal and Udin 1972; Jessor, Jessor & Finney 1973; Sadava 1973a, 1973b; Huba, Wingard & Bentler 1979). 개인이 속한 하위문화(subculture)의 경우, 사회 집단에 대한 소속감(membership), 적극적인 참여행동, 강한 종교적 신념, 자신과 종교와의 높은 일치감 등을 자신의 행동준거로 삼는 사람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물사용이 낮았다(Baskett and Nyswander 1973; Chein et al 1964; Franzini and Mc Donald 1973; Jessor et al 1973). 반면 사회적 성숙, 자기통제, 책임감등이 부족하고 사회적 가치들을 경시하며,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일탈된 사회화과정(deviant socialization)을 거친 이들에게서 약물의 사용이 높을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들은 비행청소년 집단이었고,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지지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변상호 1978; 이길홍 외 1985; Chein et al 1964; Robins and Murppy 1967). 그외에, 그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약물의 입수 용이성이 크면 소비되는 양도 많았다(Smart, Whitehead & La Forest 1971).

약물사용자 특성연구의 두번째 범주는 성격특성으로 성격특질(traits)과 태도 및 기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성격적으로 사회 동조성이 부족한 경우와 사회화가 덜 된(undersocialized) 경우 등이 약물사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Knecht, Cundick, Edwards, and Gunderson 1972; Sadava 1973a). Labouvie와 Mc Gee(1986)에 의하면 약물과 술 사용의 유발요인(excitor)은 친애(affiliation), 자율성(autonomy), 과시(exhibition), 유희(play), 충동성(impulsivity)등의 욕구이며, 성취(achievement), 인지적 관심추구(cognitive structure), 위협회피(harm avoidance)등의 욕구는 억제요인(suppressor)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태도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약물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긍정적 태도가 형성되면 약물사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가 있다(Jessor et al 1973; Sadava 1973a, 1973b). 예를 들면, 아동기에 부모의 음주와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 사람은 다른 종류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도 일반화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약물 자체에 대한 태도요인 외에도 그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알콜남용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경우 비사용자의 경우에서보다 그들이 알콜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기대했다(Brawn, Creamer & Stetson 1987).

위에서 언급된 이러한 특성들은 결핍된 양육배경(poor parental background), 약물사용을 하는 여러 동료들, 전통적 가치에 대한 낮은 사회화,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어느정도는 충족될 수 있는 개인적 욕구 등으로 요약 가능하며, Gorsuch와 Butler(1976)는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불법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약물사용자 특성중 세번째 범주는 유전적 소인(predisposition)에 관한 것이다. 입양된 약물남용자의 2세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음주관련 문제가 있었던 생물학적 배경을 지닌 아동의 경우,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을 때, 약물남용율이 높았다(Cadoret, Troughton, O'Gorman & Heywood 1986). Tarter(1988)는 유전된 행동 성향(inherited behavioral propensities) 또는 기질(temperament)이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성격이 형성된다고 할때, 마약류의 남용이 명백히 반사회적 성격이나 신경증적 특질들과 관련됨을 고려하면, 향정신성 물질남용에 유전적 소인이 작용한다는 것은 타당한 가정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들 모두의 결론은 아동의 발달시기상의 환경적 요인이 또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단지 향정신성 물질남용 연구에 있어 병적소인(diathesis)이 고려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는데 그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의 약물사용과 남용이 어떤 이론적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소수의 변인에 의해 설명되어지지

보다는 다양한 측면의 여러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라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였다. 약물 사용 행동이 중다변인들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질 수 밖에 없음이 명백해진 이후로 청소년 일반을 전집으로 하는 대표본 추출에 의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앞에서 열거한 여러 요인들 중 약물사용 시작(initiation)과 남용에 어떤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인지를 밝혀보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 중에서 다양한 여러 변인들과 청소년의 약물사용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잘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가 공통위험요인이론(common risk factor theory)이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특정한 적응기제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것으로, 남용의 위험성은 적응을 요하는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겠는가 보다는 얼마나 많은 것에 적응해야 하는가가 주요한 문제라는 것이다(Bry, Mc Keon & Pandina 1982). 즉 여러종류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몇몇의 중요한 공통적인 원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정종류의 약물사용이 특정한 원인과 관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동시에 약물의 사용정도는 한 개인에게 이러한 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 낮은 학점, 2) 종교심 부족, 3) 이른 음주경험, 4) 낮은 자존심(low self-esteem), 5) 정신병리, 6) 부모와의 나쁜관계라는 6개의 가정된 위험요인과 약물사용간의 연관성을 보니, 많은 위험요인들을 가진 청소년일수록 담배, 술, 마약, 독한 약물, 처방되지 않은 의약품의 사용율이 높았다. 즉, 약물사용경험(양과 빈도)과 위험요인의 수간에는 직선적인 관계가 있었다(Bry et al 1982). Newcomb, Maddahian과 Bentler(1986)는 Bry등(1982)의 요인에 사회동조성의 결여, 자극추구, 지각된 동료의 약물사용, 지각된 성인의 약물사용이라는 4가지 위험요인을 첨가하여 종단적 연구를 행한 결과 횡단적으로 실시되었던 Bry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공통위험요인이론을 검증한 연구결과들은 이제까지 어떤 이론적 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던 청소년의 약물사용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었다.

어쨌든, 한 사회내에서의 청소년의 약물사용은

그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에 크게 의존하므로(Kandel 1975), 경험적인 연구를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물사용이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간접적으로나마 추측해 보는 것은 청소년의 약물관련 문제행동의 예방과 치유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되었다.

## 방 법

### 1. 조사도구

#### 1) 약물사용실태 질문지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청소년의 약물사용실태와 그와 연관을 맺고 있으리라 예상되는 개인의 배경정보를 묻는 자유응답형 또는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의 내용은 첫째, 개인적 배경에 관한 것으로서 성별, 나이(학년), 학업성적, 비행경험 등이며 둘째, 청소년의 약물사용실태에 관한 것으로 1. 담배, 2. 술, 3. 마약류와 대마초, 4. 본드, 신나, 가스등의 환각물질, 5. 각성제, 6. 수면제, 7. 진통 진정제 및 해열 진통제 등 모두 7가지 대표적 약물에 대한 사용경험, 현재 사용빈도, 지각된 약물의 입수용이성, 사용동료의 수와 그외 지각된 부모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태도, 가족의 훈육도 등에 관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7가지 약물은 Bry등(1982), Kandel등(1984)의 연구에 포함되었던 것과 한국의 선행연구들(김성이 1988; 이길홍 1985)에서 조사되었던 약물들을 종류별로 묶은 것이었다. 의약품의 분류 및 제품의 상호는 최연아(1987)의 연구에서 이용되었던 것을 따랐다. 물론 이외에도 청소년에게서 사용되는 약물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 그 사용율이 극히 낮았던 암페타민(amphetamines), 바비투레이트(barbiturate), LSD등의 독한(hard) 향정신성 약물은 제외하였다. 마약류의 경우에는 최근 소위 히로뽕(methamphetamine)의 사용이 사회일각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문항에 포함시켰다. 약물의 사용경험은 전체적인 약물의 사용경험 유무와 현재 사용시 1) 전부합쳐 한 두

번, 2) 전부 합쳐 및 차례, 3) 한달에 몇 차례, 4) 매주 몇 차례, 5) 하루 1번, 6) 하루 여러번 등의 사용회수를 응답토록 하였다. 남자고등학교 2학년 한 학급 61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pilot study) 결과, 보고된 약물의 사용회수와 5점 척도(매우 적었다-매우 많다)상에서 보고된 약물의 주관적 사용량간의 상관관계수는 담배 : .95, 술 : .91, 환각물질 : .93, 각성제 : .90, 진통진정제 : .83으로 사용회수는 주관적인 약물의 사용량과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Hays등(1987)에 의하면 일반전집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보고된 약물의 사용정도는 주관적으로 보고된 경우와 높은 일치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사용회수를 가지고 약물의 사용정도를 구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질문지에서 비행경험은 청소년 백서(1986)와 김성이(1988)의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가장 흔하다고 보고되었던 11가지 비행에 대한 경험유무를 묻는 것으로, 경험한 항목에 1점을 주며 경험하지 않는 항목에 0점을 주어 전체 11개 항목을 모두 합한 점수를 개인의 비행점수로 하였고 일반적으로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은 많은 비행경험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비행의 내용은 심한 반항, 무단 결석, 학교에서의 처벌, 경찰서 보호, 상점에서의 절도, 흥기 소지, 금품 갈취, 음란 비디오 관람, 술집 출입, 패 싸움 등에 관한 것이었다.

지각된 약물의 입수용이도는 위의 7가지 약물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매우 쉽다-매우 어렵다)로써 표시하게 하였고, 높은 점수가 더욱 용이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전체적인 약물의 입수용이도는 7가지 약물에 대한 입수용이도의 평균을 구해 평가하였다. 약물사용 동료의 수는 7가지 약물을 사용하는 친한 친구의 수를 직접 적도록 하여 이의 평균을 구하였으며, 30명 이상을 보고한 경우에는 30명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극단치가 통계적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다. 가족의 훈육정도는 1) 평소 부모가 얼마나 일관되고 엄격한 훈육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2) 부모가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다고 느끼는지, 3) 스스로가 부모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묻는 세 문항을 5점척도(항상 그렇다-거의 그런 경우가

없다)로 응답케하여 이들의 평균점수로 나타나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의 가족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탈행동에 대한 기회를 적게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지각된 부모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태도는 직접 이를 묻는 1개의 문항으로 5점 척도(항상 그렇다-거의 그런 경우가 없다)를 이용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 2) 간이정신진단검사

간이정신진단 검사는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를 평가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훈구(1986)가 표준화된 한국판 Symptom Check List(SCL-90) (김광일과 원호택, 1980)를 요인분석하여 47개 문항으로 축소제작한 것을 이용하였다(김범준(1987)의 논문을 보라). 이 검사는 원래의 SCL-90와 같이 신체화, 강박증 등 9가지 증상차원을 평가하며, 전체심도지수(GSI)로써 개인의 일반적인 심리적 고통(psychological distress)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게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47개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5였으며, 각 하위척도 별로는 신체화 : .78, 강박증 : .72, 우울증 : .81, 불안신경증 : .84, 적대감 : .82, 대인 예민성 : .79, 공포불안 : .68, 편집증 : .74, 정신증 : .68였다.

간이정신진단 검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도구가 비표준화된 것이었으므로 각 하위척도별로 평균치를 환산하여 평균치 간의 차이를 검증해 보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통계적 차이가 정상범위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병리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구별해 주지는 못하지만, 어느 집단이 어느 집단보다 얼마만큼 각 증상차원과 전체심도지수에서 나쁜 양상을 나타내는지는 비교가 가능하게 하여 주었다.

## 3) 자아개념 검사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아개념 검사는 1965년 Fitts에 의해 제작된 "The Tennessee Self Concept Scale(TSCS)"을 정원식(1968)이 표준화한 것이다. 이 검사는 원래 90개의 자아개념 관련문항과 10개의 MMPI 허구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 관련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본 연구자가 약물사용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개인의 가정적 화목도, 규범의 존중 정도, 성격의 안정성, 원만한 대인관계를 포함하는 내용의 자아개념을 평가한다. 제작자에 의해 보고된 검사의 신뢰도는 각 하위척도별로 .75~.88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며, 본 연구의 응답자 반응을 기초로한 90개 문항의 내적합치도 신뢰도 계수는 .92였고 각 하위척도별로는 신체적 자아척도 : .69, 가정적 자아척도 : .85, 도덕적 자아척도 : .75, 성격적 자아척도 : .82, 사회적 자아척도 : .80이었다.

## 2. 조사 절차

본 조사는 1988년 10월 17일부터 11월 4일 사이에 학급단위로 임의표집된 서울의 9개 고등학교 1, 2학년생 92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을 한 30매(남자 : 26, 여자 : 4)의 응답자료를 제외한 898명의 자료가 분석대상이 되었으며, 이 중 1학년은 389명, 2학년은 509명이었고 구체적인 표집대상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학생들은 조사도구를 한테모은 질문지를 교사로부터 배부받아 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하거나, 집에 가서 완성해와 일괄 제출하였다. 질문지는 응답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익명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 결 과

약물사용자 특성을 밝히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들이 최근 6개월 내에 각각의 약물을 어느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결과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이때 일회적 경험자는 전부합쳐 몇 차례(담배는 일주일에 몇 차례)의 사용경험이 있는 경

우, 부정기 사용자는 한 달에 몇 차례의 약물을 사용한 경우(담배는 일 1~2회), 정기적 사용자는 일주일에 수 회(담배는 일반갑이상) 사용한 경우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                    | 남 자           | 여 자             |
|--------------------|---------------|-----------------|
| 1. 평균 연령<br>(표준편차) | 16.5세(0.7)    | 16.3세(0.7)      |
| 2. 종교(%)           |               |                 |
| 1) 없음              | 200(43.0)     | 137(31.6)       |
| 2) 기독교             | 159(34.2)     | 200(46.2)       |
| 3) 천주교             | 42( 9.0)      | 62(14.3)        |
| 4) 불 교             | 58(12.5)      | 29( 6.7)        |
| 5) 유 교             | 1( 0.2)       |                 |
| 6) 기 타             |               | 2( 0.5)         |
| 무응답                | 5             | 3               |
| 3. 사회경제적 지위(%)     |               |                 |
| 1) 상의 상            | 5( 1.1)       | 8( 1.8)         |
| 2) 상의 하            | 19( 4.1)      | 28( 6.5)        |
| 3) 중의 상            | 243(52.3)     | 217(50.1)       |
| 4) 중의 하            | 144(31.0)     | 131(30.3)       |
| 5) 하의 상            | 35( 7.5)      | 22( 5.1)        |
| 6) 하의 하            | 7( 1.5)       | 5( 1.2)         |
| 무응답                | 12( 2.6)      | 22( 5.1)        |
| 4. 평균 용돈(SD)       | 16,560원(9490) | 19,270원(11,750) |
| 5. 평균 가족수(SD)      | 4.8명(1.03)    | 5.18명(1.2)      |
| 6. 부모의 부재상황(%)     |               |                 |
| 1) 양친 모두 계심        | 417(89.7)     | 374(86.4)       |
| 2) 아버지 부재          | 35( 7.5)      | 43( 9.9)        |
| 3) 어머니 부재          | 6( 1.3)       | 11( 2.5)        |
| 4) 이 혼             | 2( 0.4)       | 1( 0.2)         |
| 무응답                | 5             | 4               |

표 1.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    | 인문주간           | 실업주간           | 인문야간          | 실업야간           | 계              |
|----|----------------|----------------|---------------|----------------|----------------|
| 남자 | 266<br>(57.2)  | 103<br>(22.15) | 39<br>(8.39)  | 57<br>(12.26)  | 465<br>(51.78) |
| 여자 | 216<br>(49.88) | 117<br>(27.02) | 48<br>(11.09) | 52<br>(12.01)  | 433<br>(48.22) |
| 계  | 482<br>(53.67) | 220<br>(24.5)  | 87<br>(9.69)  | 109<br>(12.14) | 898            |

( )안은 백분율

표 3. 약물의 현재 사용 실태

|          | 남 자(n=465)    |              |             | 여 자(n=433)    |             |            | $\chi^2$ 값 |
|----------|---------------|--------------|-------------|---------------|-------------|------------|------------|
|          | 일회적경험         | 부정기          | 정기          | 일회적경험         | 부정기         | 정기         |            |
| 1. 담배    | 74<br>(15.9)  | 57<br>(12.3) | 34<br>(7.3) | 10<br>(2.3)   | 5<br>(1.2)  | 1<br>(0.2) | 141.62**** |
| 2. 술     | 125<br>(26.9) | 70<br>(15.1) | 8<br>(1.7)  | 80<br>(18.5)  | 13<br>(3.0) | 3<br>(0.7) | 59.62****  |
| 3. 환각물질  | 10<br>(2.2)   | 6<br>(1.3)   | 3<br>(0.6)  | 3<br>(0.7)    | -           | -          | 11.94**    |
| 4. 각성제   | 20<br>(4.3)   | 4<br>(0.9)   | 3<br>(0.2)  | 27<br>(0.7)   | 2<br>(0.2)  | 1          | 3.03       |
| 5. 수면제   | 4<br>(0.9)    | 1<br>(0.2)   | 1<br>(0.2)  | 3<br>(0.7)    | 1<br>(0.2)  | -          | 1.01       |
| 6. 진통진정제 | 127<br>(27.3) | 18<br>(3.9)  | 5<br>(1.1)  | 187<br>(43.2) | 39<br>(9.0) | 5<br>(1.2) | 42.82****  |

( )안은 백분율      \*\*\*\*p<.0001      \*\*\*p<.001      \*\*p<.01

표 4. 청소년의 약물 사용 양상

|               | 남자(n=465)  | 여자(n=433)  |
|---------------|------------|------------|
| 1. 무사용집단      | 214(46.0%) | 296(68.4%) |
| 2. 단순경험집단     | 117(25.2%) | 78(18.0%)  |
| 3. 단일종류 사용집단  | 32(6.9%)   | 11(2.5%)   |
| 4. 두종류 사용집단   | 55(11.8%)  | 16(3.7%)   |
| 5. 세종류 사용집단   | 34(7.3%)   |            |
| 6. 진통진정제 사용집단 | 13(2.8%)   | 32(7.4%)   |

( )은 백분율

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약물의 현재 사용율은 각성제와 수면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담배, 술, 환각물질의 경우에는 남자에게서, 진통진정제의 경우는 여자에게서 각각 더 높은 사용율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약물의 종류별 사용율은 전반적으로 선행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예상과는 달리 마약류와 대마초의 사용자가 없어 추후의 분석에서 이 범주의 약물은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의 종류별 사용율은 약물사용자 개개인에서 보면 별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개개인 별로 보면 여러종류의 약물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약물관련 특성이 약물의 과다사용자에

게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약물의 사용량에 따른 집단구분을 시도하였고, 이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집단의 구분은 무사용집단에서 세종류 사용집단으로 갈수록 여러 종류의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속하도록 분류한 것이었다. 이때 최근 6개월 이내에 어떠한 종류의 약물도 사용해 본 적이 없거나, 단순히 진통진정제를 몇 차례 써 본 사람의 경우는 무사용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이들은 남자의 경우 전체의 46%, 214명이었으며, 여자의 경우는 68.4%, 296명이었다. 6가지 약물중 어떤 것들을 단지 몇 차례까지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남학생 중 25.2%, 117명, 여학생 중 18%인 78명의 사람들은 단순경험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이들의 대부분은 술이나 담배 또는 각성제를 몇 차례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다.

단일종류 사용집단은 술 또는 담배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남자는 전체의 6.9%로 32명(흡연: 15명, 음주: 16명, 각성제: 1명)이었으며, 여자는 2.5%로 11명(음주: 6명, 수면제: 1명, 그외 4명)이었다. 여자의 경우 각성제를 동반하며 경험약물의 종류가 3가지 이상으로 단순경험 집단보다는 많은 약물을 사용하는 사례를 이 집단에 포함시켰다. 두종류 사용집단은 남자의 경우

부정기적인 음주와 흡연만을 하는 학생들로 이들은 적어도 하루 1~2회이상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매월 몇 번 이상의 음주를 하는 학생들로 전체의 11.8%인 55명이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두종류 사용집단을 가장많은 약물을 사용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주로 음주의 흡연을 부정기 이상 보고하였으며, 한 종류이상의 약물을 단순경험한 경우였다. 세종류 사용집단은 남자의 경우로 적어도 세가지 이상의 약물을 한달에 몇 차례이상(담배는 하루 1~2회 이상) 사용하는 학생들로 거의 모두가 술과 담배를 부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외에 진통 진통제, 각성제, 환각물질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전체의 7.3%인 34명이었다. 진통진정제 사용집단은 다른 약물은 사용하지 않고 진통진정제 만을 부정기적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로 이들은 남학생의 경우 2.8%로 13명이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7.4%로 32명이었다. 이들은 의약품의 과다사용집단으로 간주되어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집단과 비교하기 위하여 단일종

류 사용집단에서 구분하였다. 각각의 약물사용의 남녀 차가 컸으며, 남녀 집단별로 약물사용자의 특성이 다를 수 있었으므로 남녀 각각에 대해 개인적 배경, 간이정신진단검사, 자아개념검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1. 개인적 배경변인의 집단간 차이

남녀 각각 집단별로 개인적 배경변인이라 할 수 있는 학업성적, 비행경험, 지각된 약물의 입수용이도, 평균사용 동료수, 가족의 훈육도, 부모의 일반적인 음주와 흡연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일원변량 분석 하였다. 이 결과는 남녀 각각 표 5와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남자 청소년의 배경변인 분석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학업성적( $F(5,459)=8.03, p<.0001$ ), 비행경험( $F(5,459)=61.76, p<.001$ ), 지각된 약물의 입수용이도( $F(5,432)=3.94, p<.001$ ), 약물사용 동료수( $F(5,400)=10.59, p<.001$ ), 가족의 훈육도( $F(5,395)=3.89, p<.001$ )등으

표 5. 남자청소년의 개인적 배경변인의 집단간 차이검증

|                            | 무사용<br>집단                     | 단순경험<br>집단                      | 단일종류<br>사용집단                   | 두종류<br>사용집단                  | 세종류<br>사용집단                  | 진통진정제<br>사용집단                  | F 값       |
|----------------------------|-------------------------------|---------------------------------|--------------------------------|------------------------------|------------------------------|--------------------------------|-----------|
| 1. 학업성적                    | 20.42 a<br>(12.78)<br>( 202 ) | 25.12 a,b<br>(13.68)<br>( 109 ) | 27.03 a,b<br>(14.73)<br>( 29 ) | 31.67 b<br>(15.04)<br>( 49 ) | 31.03 b<br>(16.99)<br>( 34 ) | 22.00 a,b<br>(12.67)<br>( 12 ) | 8.03****  |
| 2. 비행경험                    | 1.50 a<br>( 1.53)<br>( 214 )  | 2.61 b<br>( 1.81)<br>( 117 )    | 3.97 c<br>( 2.61)<br>( 32 )    | 4.55 d<br>( 2.02)<br>( 55 )  | 6.59 e<br>( 2.69)<br>( 34 )  | 2.15 a,b<br>( 1.77)<br>( 13 )  | 61.76**** |
| 3. 지각된 입수<br>용이도           | 3.58 a<br>( .78 )<br>( 193 )  | 3.69 a<br>( .82 )<br>( 116 )    | 3.93 a<br>( .71 )<br>( 31 )    | 3.92 a<br>( .85 )<br>( 53 )  | 4.10 b<br>( .68 )<br>( 33 )  | 3.85 a<br>( .61 )<br>( 12 )    | 3.94***   |
| 4. 동료수                     | 3.42 a<br>( 4.33)<br>( 168 )  | 3.87 a<br>( 3.48)<br>( 112 )    | 5.49 a,b<br>( 3.56)<br>( 31 )  | 7.26 b<br>( 5.35)<br>( 52 )  | 7.51 b<br>( 4.99)<br>( 31 )  | 4.98 a,b<br>( 3.30)<br>( 12 )  | 10.59**** |
| 5. 가족의 훈육도                 | 3.35<br>( .71 )<br>( 186 )    | 3.17<br>( .65 )<br>( 103 )      | 2.99<br>( .52 )<br>( 24 )      | 3.00<br>( .73 )<br>( 47 )    | 3.01<br>( .68 )<br>( 29 )    | 3.5<br>( .56 )<br>( 12 )       | 3.89***   |
| 6. 부모의 음주와<br>흡연에 대한<br>태도 | 2.00<br>( 1.13)<br>( 185 )    | 2.37<br>( 1.25)<br>( 102 )      | 2.35<br>( 1.27)<br>( 23 )      | 2.28<br>( 1.04)<br>( 47 )    | 2.14<br>( 1.09)<br>( 29 )    | 2.25<br>( 1.22)<br>( 12 )      | 1.62      |

첫째 ( )는 표준편차      \*\*\*\* $p<.0001$       \*\*\* $p<.001$

둘째 ( )는 사례수

Scheffé 검증 결과 차이없는 평균치들은 같은 alphabet로 표시하였음.



표 6. 여자 청소년의 개인적 배경변인의 집단간 차이검증

|                            | 무사용<br>집단                    | 단순경험<br>집단                  | 단일종류<br>사용집단                   | 두종류<br>사용집단                   | 진통진정제<br>사용집단                 | F 값       |
|----------------------------|------------------------------|-----------------------------|--------------------------------|-------------------------------|-------------------------------|-----------|
| 1. 학업성적                    | 20.60<br>(13.29)<br>( 214 )  | 26.18<br>(15.13)<br>( 68 )  | 20.63<br>(16.65)<br>( 8 )      | 29.67<br>(11.67)<br>( 15 )    | 24.89<br>(14.44)<br>( 19 )    | 3.42**    |
| 2. 비행경험                    | .85 a<br>( 1.11)<br>( 296 )  | 1.77 b<br>( 1.41)<br>( 78 ) | 1.64 a,b<br>( 1.03 )<br>( 11 ) | 4.13 c<br>( 2.96)<br>( 16 )   | 1.41 a,b<br>( 1.41)<br>( 32 ) | 29.90**** |
| 3. 지각된 입수<br>용이도           | 3.58<br>( .82 )<br>( 280 )   | 3.71<br>( .62 )<br>( 77 )   | 3.68<br>( .64 )<br>( 11 )      | 3.80<br>( .84 )<br>( 15 )     | 3.45<br>( .63 )<br>( 30 )     | 1.00      |
| 4. 동료수                     | 2.33<br>( 4.73)<br>( 237 )   | 2.22<br>( 2.27)<br>( 68 )   | 2.06<br>( 2.30)<br>( 11 )      | 5.14<br>( 3.84)<br>( 14 )     | 3.94<br>( 7.67)<br>( 27 )     | 1.995     |
| 5. 가족 훈육도                  | 3.25 a<br>( .77 )<br>( 294 ) | 2.88 b<br>( .69 )<br>( 78 ) | 3.00 a,b<br>( .83 )<br>( 11 )  | 2.96 a,b<br>( .47 )<br>( 16 ) | 2.95 a,b<br>( .86 )<br>( 32 ) | 4.52**    |
| 6. 부모의 음주와<br>흡연에 대한<br>태도 | 1.80<br>( 1.03)<br>( 293 )   | 2.03<br>( 1.03)<br>( 78 )   | 2.08<br>( .83 )<br>( 11 )      | 1.91<br>( 1.46)<br>( 16 )     | 2.00<br>( 1.17)<br>( 31 )     | 1.30      |

첫째 ( )는 표준편차      \*\*\*\*p<.0001      \*\*\*p<.001      \*\*p<.01  
 두번째 ( )는 사례수  
 Scheffé 검증 결과 차이없는 것은 같은 alphabet로 표기 하였음.

로, 이는 대체로 약물사용이 많은 이들이 학업성적이 낮고 비행경험이 높으며, 약물사용 동료가 많고, 약물입수가 더 용이하다고 지각하며, 가족의 훈육도가 낮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특히 비행경험은 무사용-단순경험-단일종류사용-두종류사용-세종류 사용집단 간에서 모두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청소년의 약물사용과 그 정도에 따라 가장 뚜렷하게 표출되는 특성으로 생각되었다. 반면 그외 변인들에서 나타난 통계적 차이는 무사용집단과 두종류-세종류 사용집단 간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이러한 결과는 위와같은 약물사용자의 특성이 단순경험이나 단일종류 사용같은 비교적 경미한 약물사용자에게서 보다는 비교적 많은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에게서 보다 두드러짐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되었다. 한편 진통진정제 사용집단의 경우에는 무사용집단과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자 청소년의 개인적 배경변인의 분석결과, 다섯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인은 학업성

적(F(4,319)=3.42, p<.0093), 비행경험(F(4,428)=29.60, p<.0001), 가족의 훈육도(F(4,425)=4.52, p<.0041)등 3가지 었다.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비행경험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각 집단에게서 가장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변인들에 있어서는 남학생과 같이 가장 많은 약물사용집단(두종류 사용집단)이 다른 집단과 확연히 구분되는 양상을 나타내지 않았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집단간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던 사용동료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4,352)=1.995, p<.09). 하지만, 단일종류 사용집단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자와는 달리 여학생중 가장많은 약물을 사용하는 집단은 두종류 사용집단임을 감안하여 표 6을 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의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남학생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즉 여자청소년의 경우도 많은 약물을 사용하는 이들이 낮은 학업성적, 높은 비행경험, 낮은 가족의 훈육도, 많은 사용동료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며, 이러한 경향은 두종류 사용집단에게서 두드러졌다. 반면 지각된 약물의 입수용이도의 경우에는 남자에게서와는 달리 차이가 없었다. 진통진정제 사용집단의 경우에는 남자와 같이 무사용집단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 청소년의 배경변인 분석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낮은 수준의 약물사용자는 무사용자보다는 많은 비행경험을 가진다는 특성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많은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더 높은 비행경험에 낮은 학업성적, 많은 사용동료, 낮은 가족의 훈육도, 높은 약물의 지각된 입수용이도를 가진다는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약물사용자의 특성은 여자보다는 전반적으로 약물사용정도가 높은 남자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

다.

## 2. 정신건강 수준의 집단 간 차이

각 집단간의 일반적인 정신건강 상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간이정신진단 검사를 실시하였다. 9개의 하위척도와 전체적인 심리적 부적응의 심도를 나타내는 전체심도지수(general severity index : GSI)를 각 집단별로 일원변량 분석하였다. 결과는 남녀 각각 표 7과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남자 청소년의 경우 GSI( $F(5,459)=9.31, p<.0001$ )를 비롯한 대부분의 하위척도에서 세종류 사용집단이 다른 집단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단순경험-단일종류-두종류 사용집단은 무사용집단과 별 차이가 없이 적대감 척

표 7. 남자 청소년의 간이정신진단 검사의 집단간 차이검증

|           | 무사용<br>집단<br>(n=214) | 단순경험<br>집단<br>(n=117) | 단일종류<br>사용집단<br>(n=32) | 두종류<br>사용집단<br>(n=55) | 세종류<br>사용집단<br>(n=34) | 진통진정제<br>사용집단<br>(n=13) | F 값       |
|-----------|----------------------|-----------------------|------------------------|-----------------------|-----------------------|-------------------------|-----------|
| 1. 신체화    | .48 a<br>(.51)       | .56 a<br>(.47)        | .77 a,b<br>(.68)       | .77 a,b<br>(.71)      | 1.05 b<br>(.82)       | .78 a,b<br>(.67)        | 7.88****  |
| 2. 강박증    | 1.32 a<br>(.75)      | 1.42 a,b<br>(.74)     | 1.48 a,b<br>(1.0)      | 1.33 a,b<br>(.64)     | 1.85 b<br>(.88)       | 1.91 a,b<br>(.55)       | 4.10***   |
| 3. 대인 예민성 | 1.18 a<br>(.67)      | 1.25 a,b<br>(.70)     | 1.23 a,b<br>(.86)      | 1.01 a<br>(.61)       | 1.66 b<br>(.85)       | 1.62 a,b<br>(.38)       | 4.72****  |
| 4. 우울증    | 1.20 a<br>(.80)      | 1.36 a,b<br>(.74)     | 1.55 a<br>(.96)        | 1.43 a<br>(.92)       | 2.10 b<br>(1.03)      | 1.82 b<br>(.97)         | 7.92****  |
| 5. 불안신경증  | .83 a<br>(.68)       | .94 a,b<br>(.73)      | .89 a<br>(.82)         | .92 a<br>(.69)        | 1.57 b<br>(1.00)      | 1.25 a,b<br>(.66)       | 6.55****  |
| 6. 적대감    | .82 a<br>(.61)       | 1.10 b<br>(.70)       | 1.16 a,b<br>(.84)      | 1.21 b<br>(.79)       | 1.81 c<br>(.87)       | 1.40 a,b,c<br>(.72)     | 14.41**** |
| 7. 공포불안   | .51 a<br>(.60)       | .47 a<br>(.51)        | .61 a,b<br>(.64)       | .35 a<br>(.41)        | .88 b<br>(.84)        | .67 a,b<br>(.50)        | 3.94***   |
| 8. 편집증    | .57 a<br>(.63)       | .74 a<br>(.64)        | .77 a<br>(.71)         | .75 a<br>(.63)        | 1.33 b<br>(.95)       | 1.06 a,b<br>(.66)       | 8.60****  |
| 9. 정신증    | .72 a<br>(.65)       | .81 a<br>(.65)        | .90 a,d<br>(.89)       | .76 a,d<br>(.64)      | 1.36 b<br>(.94)       | 1.44 b,d<br>(.69)       | 7.27****  |
| GSI       | .88 a<br>(.53)       | .99 a<br>(.52)        | 1.07 a<br>(.70)        | .98 a<br>(.55)        | 1.54 b<br>(.74)       | 1.35 a,b<br>(.50)       | 9.31****  |

( )는 표준편차 \*\*\*\* $p<.0001$  \*\*\* $p<.001$   
Scheffé 검증결과 차이없는 평균치는 같은 alphabet 표기 하였음.

도에서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F(5,459)=14.41, p<.0001$ ). 이러한 결과는 음주-흡연외에 본드흡입 등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가 특히 심리적으로 불건강한 경향성을 나타냄을 암시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단순히 한 두종류의 약물을 경험하거나, 정기적인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 특성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사용집단들에서 나타난 적대감 척도점수의 상승은 척도문항의 내용이 공격적인 부정적 정서를 반영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행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한편 적은 사례수로 구성된 진통진정제 사용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세종류 사용집단외에 다른 집단들보다는 상당히 높은 점수분

포를 나타냄으로써 의약품인 진통진정제를 상당량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비교적 심리적인 부적응의 정도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인 약물사용정도가 남학생보다 훨씬 낮았던 여학생들의 경우, 심각한 약물사용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세종류 사용집단이 없었기 때문인지 무사용집단에 비해 사용집단들이 적대감 척도점수가 높다는 것( $F(4,428)=8.44, p<.0001$ )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남학생에서와 같이 약물사용자들의 높은 비행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반면 진통진정제 사용집단이 GSI( $F(4,428)=2.64, p<.03$ ) 및 대부분의 하위척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가장 정신건강수준이 낮은 것으

표 8. 여자 청소년의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집단간 차이검증

|          | 무사용<br>집단<br>(n=296) | 단순경험<br>집단<br>(n=78) | 단일종류<br>사용집단<br>(n=11) | 두종류<br>사용집단<br>(n=16) | 진통진정제<br>사용집단<br>(n=32) | F 값      |
|----------|----------------------|----------------------|------------------------|-----------------------|-------------------------|----------|
| 1. 신체화   | .69 a<br>(.62)       | .77 a,b<br>(.64)     | .85 a,b<br>(.56)       | .63 a,b<br>(.63)      | 1.12 b<br>(.85)         | 3.58**   |
| 2. 강박증   | 1.30<br>(.69)        | 1.32<br>(.76)        | 1.18<br>(.48)          | 1.38<br>(.65)         | 1.54<br>(.88)           | .98      |
| 3. 대인예민성 | 1.20<br>(.65)        | 1.19<br>(.70)        | 1.06<br>(.51)          | 1.20<br>(.61)         | 1.49<br>(.79)           | 1.57     |
| 4. 우울    | 1.52<br>(.81)        | 1.62<br>(.86)        | 1.85<br>(.87)          | 1.81<br>(.67)         | 1.84<br>(1.12)          | 1.75     |
| 5. 불안신경증 | 1.10<br>(.79)        | 1.15<br>(.82)        | 1.27<br>(.67)          | 1.31<br>(.68)         | 1.5<br>(1.00)           | 2.01     |
| 6. 적대감   | .85 a<br>(.60)       | 1.12 b<br>(.89)      | 1.11 a,b<br>(.77)      | 1.61 b<br>(.63)       | 1.23 b<br>(.84)         | 8.44**** |
| 7. 공포불안  | .54<br>(.60)         | .53<br>(.60)         | .52<br>(.64)           | .53<br>(.47)          | .56<br>(.53)            | .02      |
| 8. 편집증   | .69 a<br>(.59)       | .76 a,b<br>(.63)     | .64 a,b<br>(.42)       | 1.00 a,b<br>(.70)     | 1.10 b<br>(.95)         | 4.09**   |
| 9. 정신증   | 1.04<br>(.75)        | 1.00<br>(.75)        | 1.23<br>(.73)          | 1.00<br>(.58)         | 1.37<br>(.95)           | 1.59     |
| GSI      | 1.02<br>(.54)        | 1.08<br>(.59)        | 1.09<br>(.45)          | 1.20<br>(.53)         | 1.33<br>(.74)           | 2.64*    |

( )는 표준편차 \*\*\*\*p<.0001 \*\*p<.01 \*p<.05  
Scheffé 검증 결과 차이없는 평균치들은 같은 alphabet로 표기 하였음.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청소년 중에서는 의약품인 진통진정제를 오, 남용하는 이들의 문제가 음주-흡연을 비롯한 약물사용 문제만큼이나 두드러지는 문제라고 생각하게 하였다.

### 3. 자아개념의 집단간 차이

각 집단의 자아개념, 즉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며 스스로가 취하는 행동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자아개념

갈등이나 불만이 상대적으로 큰 등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스스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반면, 진통진정제 사용집단을 제외하고 무사용집단을 비롯한 다른 집단에서는 세종류 사용집단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자아개념 점수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낮은 자아개념을 보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약물사용을 하는 청소년의 또 하나의 특성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퍼 지통지정

정신인 권이 카도르 카리엔그 신이브카보신 리엔 에 키오 키리수 투에 키스그 수인리키는 신이수이

다. 결과는 남녀 각각 표 9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세종류 사용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신체적 자아( $F(5,459)=3.49, p<.01$ ), 도덕적 자아( $F(5,458)=7.67, p<.0001$ ), 성격적 자아( $F(5,456)=5.70, p<.0001$ ), 가정적 자아( $F(5,455)=5.44, p<.0001$ ) 점수가 가장 낮아 전반적인 자아개념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F(5,454)=5.39, p<.0001$ ). 이러한 결과는 음주-흡연외에 환각물질 등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신체적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자신감이 부족하며, 사회적 윤리나 도덕체계의 내면화가 덜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성격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가정생활에서의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이들 역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가정적 긍지나 원만함을 나타내는 척도의 점수의 하락은 나타내지 않았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간이정신진단검사의 결과와도 유사하게 전체적인 자아개념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진통진정제 사용집단이었다( $F(4,425)=4.11, p<.0028$ ). 이들은 신체적 적절감, 대인관계상의 원만함이 가장 낮았고, 윤리적 기준과 안정된 성격을 나타내는 척도 상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들은 가정적인 긍지나 원만함을 나타내는 점수의 하락은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이정신진단검사의 결과에서

표 10. 여자 청소년의 자아개념 검사의 집단간 차이검증

|       | 무사용<br>집단<br>(n=296) | 단순경험<br>집단<br>(n=78)  | 단일종류<br>사용집단<br>(n=11) | 두종류<br>사용집단<br>(n=16) | 진통진정제<br>사용집단<br>(n=32) | F 값     |
|-------|----------------------|-----------------------|------------------------|-----------------------|-------------------------|---------|
| 신체적자아 | 61.86<br>( 7.30)     | 61.35<br>( 7.48)      | 60.45<br>(10.88)       | 61.94<br>( 9.19)      | 57.47<br>( 9.54)        | 2.42*   |
| 도덕적자아 | 59.70 a<br>( 6.69)   | 58.86 a<br>( 6.39)    | 57.91 a,b<br>( 7.33)   | 52.81 b<br>( 7.60)    | 56.38 a,b<br>( 7.38)    | 5.47*** |
| 성격적자아 | 57.19 a<br>( 7.94)   | 57.04 a,b<br>( 6.40)  | 58.55 a,b<br>( 8.19)   | 52.38 a,b<br>( 9.50)  | 52.47 b<br>( 8.60)      | 4.06**  |
| 가정적자아 | 60.43<br>( 8.90)     | 58.69<br>( 9.25)      | 53.90<br>( 9.47)       | 53.56<br>(11.87)      | 56.50<br>(10.16)        | 4.42**  |
| 사회적자아 | 56.34<br>( 7.15)     | 57.87<br>( 7.57)      | 59.18<br>( 9.14)       | 59.38<br>( 6.96)      | 53.38<br>( 7.24)        | 3.40**  |
| 총자아   | 295.71 a<br>(28.47)  | 293.81 a,b<br>(26.78) | 290.00 a,b<br>(34.13)  | 280.56 a,b<br>(34.30) | 276.19 b<br>(33.45)     | 4.11**  |

( )는 표준편차 \*\*\*p<.001 \*\*p<.01 \*p<.05  
Scheffé 검증 결과 차이없는 평균치들은 같은 alphabet로 표기 하였음.

도 지적되었듯이 진통진정제 사용집단 역시 심리적인 부적응이 상대적으로 큼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진통진정제 사용자의 특성은 특히 여자 청소년에게서 두드러짐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두종류 사용집단은 두번째로 낮은 자아개념 수준을 나타냈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윤리적 기준, 안정된 성격, 가정생활에 대한 긍지 및 원만함을 나타내는 척도상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진통진정제 사용집단을 제외하고 보면, 남자 청소년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약물을 사용하는 이들(두종류 사용집단)에게서 자아개념이 낮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욱 뚜렷한 것이었다.

#### 4. 약물남용 판별원인

위에서 열거된 개인배경 변인들과 간이정신진단 검사 및 자아개념검사의 각 하위척도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많은 약물사용자를 구분짓는 주요한 변인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때, 앞의 결과에서 제시된대로 대부분의 통계적 차이는 대부분의 경우 가

장 많은 종류의 약물사용집단과 무사용집단 사이에서 기인한 것들이었으므로, 남자의 경우는 세종류 사용집단과 무사용집단 간에, 여자의 경우는 두종류 사용집단과 무사용집단 간에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남녀각각 표 11과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남자청소년의 판별분석 결과 판별함수에 포함된 변인은 6개였으며, 기여도 순서는 비행경험, 적대감 척도, 대인예민성 척도 등의 순이었다. 판별함수와 판별대상집단 간의 정준상관계수는 .74(p=.0000)로 의미있는 관계가 있었으며, 전체판별률은 94.15%였다.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모두 8개의 변인이 판별함수에 속하였으며, 기여도 순서는 전체심도지수(GSI), 적대감 척도, 비행경험 등의 순이었다. 정준상관계수는 .667(p=.0008)로 역시 유의하였으며, 전체판별률은 99.1%였다. 하지만 남녀 모두에게서 무사용집단의 사례수가 훨씬 많아 실제로 많은 약물사용자를 옳게 분류할 확률은 남자 77.4%, 여자 60.0%에 불과하여 도출된 판별함수가 무사용자를 옳게 판별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많은 약물사용자를 옳게 판별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남자청소년의 무사용 집단과 세종류 사용집단 간의 판별분석

| 실제집단                      | 예측된 집단         |               | 표준화 판별함수 계수 |         |
|---------------------------|----------------|---------------|-------------|---------|
|                           | 무사용<br>집단      | 세종류<br>사용집단   |             |         |
| 무사용 집단<br>(n=140)         | 137<br>(97.9%) | 3<br>( 2.1%)  | 비행경험        | .71980  |
| 세종류 사용집단<br>(n=31)        | 7<br>(22.6%)   | 24<br>(77.4%) | 적대감         | .59296  |
| 전체 판별률(정확히 분류된 %): 94.15% |                |               | 대인예민성       | -.58778 |
| 정준상관계수: .74(p=.0000)      |                |               | 편집증         | -.33561 |
|                           |                |               | 입수용이도       | .24072  |
|                           |                |               | 사회적자아       | .19592  |

표 12. 여자청소년의 무사용 집단과 두종류 사용집단 간의 판별분석

| 실제집단                      | 예측된 집단         |              | 표준화 판별함수 계수 |          |
|---------------------------|----------------|--------------|-------------|----------|
|                           | 무사용<br>집단      | 두종류<br>사용집단  |             |          |
| 무사용 집단<br>(n=213)         | 211<br>(99.1%) | 2<br>( .99%) | GSI         | -1.22958 |
| 두종류 사용집단<br>(n=15)        | 6<br>(40.0%)   | 9<br>(60.0%) | 적대감         | 1.16887  |
| 전체 판별률(정확히 분류된 %): 96.49% |                |              | 비행경험        | .73938   |
| 정준상관계수: .667(p=.0008)     |                |              | 신체화         | .29951   |
|                           |                |              | 편집증         | .29786   |
|                           |                |              | 사회적자아       | .19693   |
|                           |                |              | 신체적자아       | .15321   |
|                           |                |              | 학업성적        | .13775   |

이러한 판별분석의 결과는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본 연구자가 설정한 변인들 중에서 가장많은 약물을 사용하는 집단과 무사용집단을 구분짓는 주요한 변인을 알아 보려는 것이었고, 또한 판별분석의 통계적 절차도 단계적(stepwise)방법을 이용하여 기여도가 높으면서도 변인간의 상호 상관이 높은 변인이 최종 결과에서 제외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남녀 모두에서 중요한 변인이라고 추출된 변인들이 많이 중복되었으며 특히 적대감과 비행경험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인으로 선정된 것은 선행연구(이길홍 외 1885)의 청소년 비행과 약물사용이 높은 상관을 나타낸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 비행이 약물사용을 예언하는데 매우 안정적인 요인임을 암시하는 결과였다. 그리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남학생과는 달리 정신진단검사의 전체심도지수 및 3개의 하위척도가 판별변인으로 선정된 것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심리적고통(psy-

chological distress)이 여학생의 약물사용을 예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었다.

## 논 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음주-흡연-환각물질 사용등 가장많은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학업 성적, 비행경험, 약물사용동료 등 개인적 배경변인과 정신건강, 자아개념 등에서 모두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반면 단순경험, 단일종류사용 등 비교적 경미한 약물사용자들은 개인적 배경변인들에서는 무사용자에 비해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내며 비행적 성향이 높았으나, 정신건강과 자아개념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앞서 결과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심각한 수준의 약물사용자의 경우에만 정신건강, 자아개념이 약물사용에 따른 결과 또는 많은 약물을 사용케하는

요인으로 관계하고, 비교적 경미한 약물사용의 경우에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약물사용자의 특성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두드러졌다.

한편 일탈적인 약물사용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었던 진통진정제 사용의 경우는 개인적 배경변인들에서는 무사용집단과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많은 약물사용자와 같이 정신건강과 자아개념 수준이 비교적 낮은 특징을 나타냈으며, 특히 여자청소년에게 이러한 양상이 뚜렷했다. 그러나 가장많은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과 진통진정제 사용집단 간에는 자아개념척도의 내용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면을 나타냈다. 즉 두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낮은 자아개념 수준을 보였으나, 진통진정제 사용집단은 가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고 사회적 대인관계상에서 어려움을 나타냈으며, 가장많은 약물의 사용집단은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가정적인 갈등이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술, 담배, 환각물질 같은 일탈적인 약물사용자와 의약품의 과다사용자 간의 주요한 차이로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많은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더 여러변인들에서 차이를 나타낸 본 연구결과는 이론적 배경에서 지적하였던 위험요인이론을 거꾸로 검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었다. 위험요인이론(Bryet al 1982)에서는 약물의 사용이 공통적이며 중요한 몇가지 원인에 의하며, 약물의 사용정도는 한 개인에게 이러한 원인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가장 많은 약물의 사용집단이 실제로 가장 많은 변인들에서 차이가 있었고, 약물의 사용정도가 낮은 집단일수록 차이변인이 적었던 본 연구결과는 위험요인이론의 주장에 잘 부합되는 것이었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일탈적인 약물사용을 잘 예언해 줄 수 있는 공통적 위험요인은 비행경험, 적대감, 많은 사용동료, 낮은 학업성적, 전반적으로 낮은 자아감과 낮은 정신건강 수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비행경험과 일반적인 적대감이 가장 두드러진 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담배와 술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약물

사용은 대개의 경우 적대감과 비행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여기에 낮은 학업성적, 낮은 자아개념과 심리적 부적응이 관여한다고 할 때,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학생들이 약물사용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교사와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약물사용의 예방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환각물질 같이 남용에 따르는 심각한 부수증상을 동반하는 약물이 명백히 담배와 술의 사용과 연관되어 있는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이미 담배와 술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더 심각한 약물사용에 개입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할 것이다. 담배와 술이 더욱 심각한 약물사용의 토대가 된다는 점은 만일 최근 문체시 되고있는 히로뽕을 비롯한 향정신성 물질이 청소년에게까지 사용되게 된다면, 아마도 상당한 수준의 음주, 흡연자로부터 이들 약물이 사용되게 됨을 암시한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미 음주와 흡연을 하는 학생들에게 약물사용에 따르는 폐해를 인식시키고, 이들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높이고 자아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선 고등학교에서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불법적인 약물사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문지법을 이용한 자기보고형식을 택함으로써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변별해내지 못하였으며, 전반적인 약물사용 보고에 있어서도 과소보고(under reported) 경향을 배제시킬 수 없었다. 이는 대표본연구의 어쩔 수 없는 약점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면담법이나 사례연구를 통해 보다 깊이있는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여러변인들이 약물사용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각 약물사용집단에 따라 이들 변인의 차이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 차이가 있었던 변인은 약물사용에 선행하는 변인들이라기 보다는 엄밀히 말하자면 약물사용에 따른 결과 변인들이었다. 약물관련 변인들은 거의 모두가 선행요인이면서 결과요인인 측면을 지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 차이가 있었던 변인들이 약물사용을 예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청소년의 약물사용 문제를 보다 깊이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구별해

낼 수 있는 연구설계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약물사용과 관계할 것으로 예상된 소수변인들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제 3의 관련변인이 있을 수 있음을 배제하지는 못하였다. 세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실시되어 한 시기에 있어 청소년의 약물사용 양상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약물사용은 엄연히 청소년의 발달과정상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이들의 약물이용 초기와 이후 단계에서 여러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대상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약물사용 행동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살피고, 특정약물의 사용이 다른 약물의 사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 네째,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1, 2학년생 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집단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 될 수 있겠으나, 청소년 중 같은 또래의 학생이 아닌 청소년 들에게는 일반화 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보려했던 개인적 배경변인들 중 '부모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태도'의 경우 단 1문항으로 이를 평가하려했던 무리가 있었다. 약물사용과 관련이 있는 개인변인은 여러 종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인들이 청소년의 약물사용과 연관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변인들이 타당하고 신뢰롭게 평가된 후에 살펴볼 수 있는 문제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타당하고 신뢰로운 방법으로 약물관련변인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김광일·김재환·원호택(1984) :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 중앙적성출판부  
 김남희(1988) : 약물남용(본드흡입) 청소년들의 적응 강화를 위한 집단상담 모형개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범준(1987) : 대학 신입생의 정신건강상태와 그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성이(1988) :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와 분석.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적십자 심포지엄. 미간행  
 민병근(1980) : 한국청소년 대마초 흡연실태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의과학 12 : 187-201  
 백명기·민병근(1981) : 비행청소년의 약물사용 빈도 및 약물사용 양상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0 : 234-248  
 이근철·이길홍·민병근(1987) : 청소년 음주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경정신의학 26 : 334-348  
 이길홍·이재광·나철·박두병·김현수·민병근(1985) : 청소년 비행의 약물상관 변인분석. 한국의과학 17 : 130-147  
 정원식(1968) : 자아개념검사 검사법요강. 서울 : 코리안 테스트센터  
 주왕기·허문영·최영욱·노성규(1983) : 중고등 학생들의 약물남용 실태(1982). 사회과학연구(강원대) 18 : 161-183  
 청소년대책위원회(1986) : 청소년 백서  
 최연아(1987) :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물사용실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Baer DJ, Corrado JJ(1974) : Heroin addict relationships with parents during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t years. J Genetic Psychology 124 : 99-103  
 Baskett GD, Nyswader RW(1973) : Drug use correlates. Psychology 10 : 54-66  
 Braucht GN, Brakarsh D, Follingstad D, Berry KL (1973) : Deviant drug use in adolescence : A review of psychosocial correlates. Psychological Bulletin 79 : 92-106  
 Brown SA, Creamer VA, Stetson BA(1987) : Adolescent Alcohol Expectancies in Relation to Personal and Parental Drinking Patterns. J Abnormal Psychology 96 : 117-121  
 Bry BH, Mc Keon P, Pandina RJ(1982) : Extent of Drug Use as a Function of Number of Risk Factors. J Abnormal Psychology 91 : 273-279  
 Cadoret RJ, Troughton E, O'Gorman TW, Heywood E(1986) : An adoption study of genetic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drug abuse. Arch Gen Psychiatry 43 : 1131-1136  
 Chein I, Gerald DL, Lee RS, Rosenfeld E(1964) : The road to H : Narcotics, delinquency, and



- social policy. New York, Basic Books
- Davison, Neale**(1986) : Abnormal Psychology. 4th ed. New York, Wiley & Sons Inc.
- Eisenthal S, Udin H**(1972) : Psych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drug and alcohol usage among neighborhood youth corps enrollees. *Developmental Psychology* 7 : 119-123
- Franzini LR, Mc Donald RD**(1973) : Marijuana usage and hypnotic susceptibility. *J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 176-180
- Gorsuch RL, Butler MC**(1976) : Initial Drug Abuse : A Review of Predisposing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Psychological Bulletin* 83 : 120-137
- Havighurst RL**(1972) :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David Ma Kay
- Huba GJ, Wingard JA, Bentler PM**(1979) : Beginning Adolescent Drug Use and Peer and Adult Interaction Patterns. *J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 265-276
- Hunt KG**(1974) : Parental permissiveness as perceived by the offspring and the degree of marijuana usage among offspring. *Human Relations* 27 : 267-258
- Jessor R, Jessor S, Finney JA**(1973) : A social psychology of marijuana use : Longitudinal studies of high school and college youth. *J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 1-15
- Kandel D**(1973) : Adolescent marijuana use : Role of parents and peers. *Science* 181 : 1067-1070
- Kandel DB, Logan JA**(1984) : Patterns of Drug Use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 I. Periods of Risk for Initiation, Continued Use, and Discontinuation. *American J Public Health* 74 : 660-666
- Knecht SD, Cundick BP, Edwards D, Gunderson EKE**(1972) : The prediction of marijuana use from personality sca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2 : 1111-1117
- Labouvie EW, Mc Gee CR**(1986) : Relation of personality of alcohol and drug use in adolescence. *J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 289-293
- Martino ER, Truss CV**(1973) : Drug use and attitudes toward social and legal aspects of marijuana in a large metropolitan university. *J Consulting Psychology* 20 : 120-126
- Newcomb MD, Bentler PM**(1988) : Impact of Adolescent Drug Use and Social Support on Problems of Young Adults : A Longitudinal Study. *J Abnormal Psychology* 97 : 64-75
- Newcomb MD, Maddahian E, Bentler PM**(1986) : Risk Factors for Drug Use among Adolescents : Concurrent and Longitudinal Analyses. *Amer J Public Health* 76 : 525-531
- Robins LE, Murphy GE**(1967) : Drug use in a normal population of young Negro men. *Amer J Mental Health* 57 : 1580-1596
- Sadava SW**(1973a) : Initiation to cannabis use : A longitudinal social psychological study of college freshmen.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5 : 371-384
- Sadava SW**(1973b) : Patterna of college student drug use : A longitudinal social learning study. *Psychological Reports* 33 : 75-86
- Smart RG, Fejer D**(1972) : Drugs use amo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 Closing the generation gap in mood modification. *J Abnormal Psychology* 79 : 153-160
- Smart RG, Whitehead P, La Forest L**(1971) : The prevention of drug abuse by young people : An argument based of the distribution of drug use. *United Nations Bulletin of Narcotics* 23 : 11-15
- Tarter RE**(1988) : Are there inherited behavioral traits that predispose to substance abuse? *J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 189-196
- Vaillant GE**(1966a) : Parent-child cultural disparity and drug addiction. *J Nerv Ment Dis* 142 : 534-539
- Vaillant GE**(1966b) : A twelve-year follow-up of New York narcotic addicts : Some social and psychiatric characteristics. *Arch Gen Psychiatry* 15 : 599-609

##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DRUG USER

Joong Kyu Park, M.A., Jung Hun Choi, Ph.D.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drug user in Korea. A questionnaire on adolescent drug use was administered to 1st or 2nd grade 898 students (465 males, 433 females) from 9 senior high schools in Seoul area. The extent of current using six representative drugs such as cigarettes, alcohol, chemical substance inducing hallucination(e.g., thinner, bond etc.), psychostimulant, hypnotic and minor tranquilizer was self-reported. Also their psychological distress, self-concept and individual-related variables such as academic grade, deviant behavior, drug-using peers, the perceived availability of drugs, the degree of family discipline, and the perceived parents' attitude for drinking and smoking were surveyed. Subjects were grouped into six(male) or five(female) subgroups (nonuser, simple experiencer, one kind of drug user, two kinds of drugs user, three kinds of drugs user(male only), minor tranquilizer user) to their extent of drug use. Then ANOVA procedure performed for group comparison of their psychological distress, self-concept and individual-related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popular drugs among adolescents in Korea were cigarettes and alcohol. Minor tranquilizer was used by about 2.8% of male and 7.41% of female subjects. In general abusers showed lower academic grade, more deviant experiences, having more drug-using peers, higher degree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lower positive self-concept than nonuser group. According to the results of discriminant analysis, hostility and deviant behavior were reliable predictive variables that distinguished abuser group from nonuser group among the associated variables in this study.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me common factors affect drug use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many common risk factors could be abusers more easily. These findings supported risk factor theory that the extent of drug use of adolescents might be associated with general maladjustment in everyday life.